



'서편제'



'남한산성'

# 남한산성·서편제... 영화로 보는 베스트셀러

아시아문화전당, 2~5일까지  
유명 소설 원작 영화 상영회  
매일 3편씩 12편 스크린에

남한산성부터 서편제, 밀양까지. 유명 소설들을 원작으로 한 다채로운 영화 작품들을 만나는 상영회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 2일부터 5일까지 '영화 가 된 책-Book&Movie' 행사를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극장3에서 개최한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도서문화프로그램 'Enjoy! 라이브러리파크'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로, ACC 라이브러리파크 소장 도서 중 영화화된 작품들을 상영하는 영화 상영회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은 매일 3편씩 총 12편의 작품이 스크린에 오른다. 먼저 2일 오전 10시 30분 '남한산성'을 상영하며 막을 올린다. '남한산성'은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다. 이어 박성연 작가의 'DMZ'를 원작으로 비무장지대에서의 국군과 북한군의 이야기를 다룬 '공동경비구역 JSA' (오후 1시), 김영하 작가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범이 새로운 연쇄살인범을 뒤쫓는 과정을 그린 '살인자의 기억법' (오후 4시)이 상영된다. 3일 프로그램은 '서편제'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정준 작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은 판소리를 주제로 한국 전통 예술과 민중의 삶, 예술가의 광기를 그린 '서

편제' (오전 10시 30분)와 단편 '선학동 나그네'를 바탕으로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천년학' (오후 1시)을 상영한다. 단편 '벨레이야기'를 원작으로 제작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한 '밀양' (오후 3시)도 스크린에 오른다. 이날 영화 '밀양' 상영 후 오후 5시 30분부터는 씨네토크 프로그램 '이정준 작가와 한국영화'가 진행되며, 이상훈 부산국제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참가해 '소설 속 문장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중심으로 관객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ACC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 4일은 불교에서 말하는 심우도(尋牛圖)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본성을 찾아가는 깨달음을 그린 김도연 작가의 '소와 함께 여행하는 밤' (오전 10시 30분), 1930년대 일제식민지 하의 경성을 우스

꽝스럽게 풍자한 이지민 작가의 '모던 보이' (오후 1시), 사형제 문제를 화두로 삶과 죽음, 죄와 벌, 인간의 조건 등을 묻는 공지영 작가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오후 4시)을 영화로 만난다. 5일은 해외 소설을 우리나라 감독이 영화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스크린에 올린다. 먼저 아사다 지로의 단편 '러브레터'를 각색한 '파이란' (오전 10시 30분)을 상영하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옛 애인을 찾아간 여자가 오히려 남자와 함께 돈을 빌려러 다니는 설정의 타이라 아즈코의 '멋진 하루' (오후 1시)가 관객들을 만난다. 이후 90년대의 거품경제가 붕괴한 직후 일본 사회상을 생생하게 그린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화차' (오후 4시)를 영화화한 작품들을 상영한다. 전편 무료 상영.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 자연 속 생명에 대한 경외

김진수 시인 15년만에  
'당나귀풀과...' 펴내

시인 김진수에게는 다양한 직함이 따른다. 화가, 시인, 들꽃 전문가, 약초 연구가 등 그를 부르는 호칭은 한두 개가 아니다.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중미술운동을 추진했고 이후 1989년 전교조 결성과 교육민주화운동을 실천한 교사이기도 했다. 이번엔 김진수 시인이 신작시집 '당나귀풀과 사람나무' (문학들)을 펴냈다. 지난 2004년 첫 시집 '아주 오래된 외출'을 펴낸 이후 15년만에 발간한 작품집에서 시인은 자연 속 생명에 대한 경외를 드러낸다. 교직을 그만 두고 광주를 벗어나 시골에 은거한 세월 동안 시인은 식물 생태와 동서양 의학에 몰입했다. 최근에는 이에 관한 산문을 쓰기도 했다. 무엇보다 '당나귀풀과 사람나무'라는 시집의 제목이 예사롭지 않다. 시집에는 당나귀풀이 나도옥잠의 다른 이름이



고 사람나무는 대극과에 속하는 갈잎작은키나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갈잎 작은 나무 앞에서 시인은 "살아갈 지상의 모든 작고 어린 것들이 가늘어/ 밤마다 낙엽이 진다" ('사람나무' 중)라고 노래한다. 또한 지난해 떨어진 갈잎을 들추고 고개를 내민 나도옥잠화를 보고는 "갈잎 헤쳐 나온 초목의 봄길 따라/ 어린 당나귀풀이 산을 내려옵니다" ('당나귀풀' 중)라고 묘사한다. 전체적으로 시집에는 도망치지 않고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이의 정신이 녹아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실존의 의지, 실존의 숭고함이 시인의 지난한 삶의 이력으로 다가온다. 한편 김 시인은 100여 차례의 미술전람회 활동 외에도 미술 평론, 교육 산문 등을 썼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ACC, '지역연계 우수전시기획' 18일까지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이 '지역연계 우수전시기획'을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시각예술 전문가들의 역량을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공모는 2개 분야에서 3팀을 선정, 내년 4-6월께 전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첫 번째 분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기념 특별전시기획전'. '민주, 평화, 인권'의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세대

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전시 기획공모다. 두 번째 분야는 '동시대 실험적 융복합 전시 콘텐츠 기획'이다. 예술과 비예술, 예술과 예술 등 경계를 초월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융복합을 통한 동시대 실험적 문화예술 콘텐츠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각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및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문화원 전시기획팀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근대 호남·서울 화단의 거장 6인 예술세계 조명

국립광주박물관, 다음달 24일까지 전통회화 특별전



김은호 작 '새를 바라보는 여인' (왼쪽)과 허백련 작 '늪시하고 돌아가다'

근대 호남과 서울 화단의 거장 6인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근대 전통회화를 조명하는 특별전 '근대의 전통 화가들-호남과 서울'을 11월 2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1876년 개항 이후 전통 화가들은 서양 문물이 밀려든 전환기를 계기로 전통 고수와 함께 변화를 꾀했다. 그 변화의 중심지는 대한제국의 수도, 지금의 서울이었다. 하지만 근대화화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호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화단이 형성된 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항 이후 20세기 전

반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활동한 전통화가 조석진(1853~1920), 안중식(1861~1919), 김은호(1892~1979), 그들과 동시에 활동한 채용신(1850~1941), 허형(1862~1938), 허백련(1891~1977)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먼저 제1장 '전통과 개화, 경계 위의 화가들'에서는 18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석지 채용신과 소림 조석진의 인생과 작품을 살펴본다. 성인이 돼 개항을 맞이한 이들은 전통 기법의 여진(御眞)제작에 함께 참여했지만, 이후 호남과 서울로 흩어져 활동하며 다른 작품세계를 형성해 나갔다. 제2장 '화가들 이끈 화가들'에서는 1860년대 초반에 태어난 1살 터울 화가 심전 안중식과 미산 허형의 인생을 비교

해 본다. 같은 시대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활동한 심전 안중식은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미술가 집단인 '서화협회'를 이끌었고, 진도에서 활동한 미산 허형은 전통적 도제교육을 유지한 화실 '운림산방'을 이끌었다. 이들은 다음 세대 화가 지망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마지막 3장 '개화기 새로운 무대 위에 선 화가들'에서는 1, 2장에서 살펴본 개화기 첫 세대에 교육받은 차세대 전통화가인 의재 허백련과 이당 김은호의 초기 작품에 초점을 맞췄다. 둘은 일본 유학 경험을 공유하고, 1920년대 전람회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함께 활동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서울과 광주로 활동 지역을 달리하며 다른 작품 세계를 형성했다. 한편 2일에는 연계 강연회(강사: 이선옥 의재미술관장)가 마련된다. 관람 및 수강료 무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역 문화 담론지 '창' 가을호 나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의 가을호(통권46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기획'은 매체 변화에 따른 지역의 독서문화를 조명했다. 독서문화에 대한 철학적 고찰, 인문학 강좌의 중요성, 독립서점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 시대 속 독서의 의의, 도서관의 역할과 전망 등 총 다섯 개의 소주제로 다뤄진다. 이향준 전남대 교수, 최승호 시민자유대학 사무국장, 임인자 독립서점 소년에서 대표, 김옥렬 민연련 대표, 정봉남 순천기독교도서관 전 관장이 참여해 각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문화인 탐구생활' 코너에서는 '창' 편



집장인 김정희 시인이 묵은 오견규 화백을 만나 그의 예술세계에 대해 이야기한다.故 (고)아산 조방원 화백의 제자인 오화백은 칠순을 넘긴 지금까지 화업의 길을 걸어오고 있으며, 올해 대동전통문화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전당' 코너에서는 부제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진단을 다룬다. 조성사업의 새로운 국면에 관한 광주전남연구원 김기근 박사의 발표문이 실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